균여향가 〈普皆廻向歌〉의 한 해석*

金星周**

要約

보현십원가는 정원본 『화엄경』 권제40의 내용인 보현보살의 10종 서원을 토대로 균여 스님이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지은 노래이다. 이 글은 보현십원가의 열 번째 노래인 〈普皆廻向歌〉의 국어학적 해석을 시도한 글이다. 일반적으로 균여 향가를 해석할 때 최행귀의 한역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행귀의 한역시 普賢行願頌은 보현십원가를 직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현십원가를 해석할 때 한역시에 지나치게 의지하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글은 〈보개회향가〉를 해석하기 위하여 普皆廻向願, 普皆廻向頌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균여 향가 해독자의 견해를 받아들이되 최근의 석독구결 등의 국어학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보개회향가〉를 해석하였다. 이 글에서 종래의 견해에 비해서 새롭게 해석한 구절로는 제1구 '修孫', 제2구의 '迴良只', 제4구의 '悟內去齊', 제8구의 '然叱爲事置耶' 등으로 이들은 각각 '닭은 손, 돌아악, 알이ᄂᆞ가져, 그엿ᄒᆞᆫ 일이도야'로 해석하였다.

*핵심어 : 균여 향가, 보현십원가, 보개회향가, 修孫, 迴良只, 悟內去齊, 事置耶

---

* 이 글은 2011년 3월과 4월 구결학회 월례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월례연구회에서 많은 조언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드린다.

** 한국기술교육 문리각연구소 연구교수

1. 서론

균여 향가는 『均如傳』(『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에 수록되어 있고, 『균여전』은 고려 재조대장경 補遺板에 入藏되어 있는 『釋華嚴敎分記圓通鈔』의 권제10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균여전』은 고려 문종 29년(1075) 前進士 赫連挺이 撰하였으며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7장 〈歌行化世分〉에 균여의 향가인 '普賢十願歌'가, 제8장 〈譯歌功德分〉에 崔行歸의 한역시인 '普賢十願頌'이 실려 있다.

普賢十種願王歌 또는 願王歌라고도 불리는 균여 향가는 般若 三藏이 漢譯한 貞元本 『華嚴經』 제40권에 나오는 普賢菩薩의 10種 行願을 토대로 균여 스님이 '범속한 사람들의 선한 바탕을 일깨우고자(願生凡俗之善根)' 각각의 行願마다 노래 한 수씩을 짓고 마지막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總結無盡歌 한 수를 보탠 것으로서, '禮敬諸佛歌, 稱讚如來歌, 廣修供養歌, 懺悔業障歌, 隨喜功德歌, 請轉法輪歌, 請佛住世歌, 常隨佛學歌, 恒順衆生歌, 普皆廻向歌, 總結無盡歌' 등 총 11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중 열 번째에 해당하는 普皆廻向歌를 대상으로 선행 해독을 비교·검토하고, 석독구결 등 최근에 이루어진 국어사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 노래를 다시 해석해 보고자 한다.

2. 普賢行願頌과 普賢行願品

균여 향가는 유사 향가와는 달리 창작 시기를 비교적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고 또 동일한 작가에 의해 지어진 차자표기 자료이다. 이뿐만 아니라 작품의 배경이 되는 貞元本 『華嚴經』 普賢行願品 원문과 均如와 同時代人인 崔行歸의 漢譯詩가 있어서 노래의 내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자표기 자료와는 달리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국어사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均如 鄕歌에 대한 연구는 정원본 『화엄경』의 보현행원품과[1] 崔行歸의 漢譯詩를 비교·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2.1. 정원본 『화엄경』 권제40 보현행원품의 보개회향원

흔히 普賢行願品이라 불리는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은 반야 삼장이 번역한 정원본 화엄경 전체를 이르는 말로 진본 『화엄경』이나 주본 『화엄경』의 入法界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普賢行願品이라 할 때는 한편으로 정원본 『화엄경』 중 권제40만을 가리켜서 부르기도 한다.[2] 정원본 『화엄경』은 화엄경 전체를 번역한 完譯은 아닌데 균여 향가의 배경이 된 普賢菩薩의 10種 行願은 정원본 『화엄경』의 권제40에 나온다. 정원본 『화엄경』의 권제40은 善財童子가 53人의 善知識을 만나면서 求道 行脚을 하던 중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났을 때 보현보살로부터 10가지의 行願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1) 정원본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은 대부분의 불경과 마찬가지로 長行과 重頌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균여 향가 연구자들은 普賢十願歌의 배경으로서 普賢行願品을 제시할 때 長行 부분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경의 내용이나 성격을 파악할 때 장항과 중송이 모두 있는 경우라면 장항과 중송을 둘 다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항보다는 중송에서 불경의 내용을 더 선명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송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최근의 균여 향가 연구 중에서 重頌까지를 고려한 업적은 김유범(2010)에서 볼 수 있다.

2) 40권본 정원본 『화엄경』 전체는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普賢行願品) 한 품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원본 『화엄경』 가운데서 권제40을 즐겨 독송하였기 때문에 普賢行願品이라 할 때는 정원본 화엄경의 권제40만을 특별히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보현행원품은 조선시대를 거쳐 크게 유행한 『六經合部』에 '六經'의 하나로서 '보현행원품'이 실려 있는 것과 80권본 주본 『화엄경』 가운데는 권제81의 이름으로 정원본 『화엄경』의 권제40이 실려 있는 것도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열 가지 行願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行願이 普皆廻向願인데,[3] 원문과 한글대장경의 번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정원본 화엄경 권제40의 長行 부분>

復次 善男子 言普皆迴向者 從初禮拜乃至隨順 所有功德皆悉迴向 盡法界 虛空界 一切衆生 願令衆生常 得安樂 無諸病苦 欲行惡法皆悉不成 所修善業皆速成就 關閉一切諸惡趣門 開示人天涅槃正路 若諸衆生因其積集諸惡業故 所感一切極重苦果我皆代受 令彼衆生悉得解脫究竟成就無上菩提 菩薩如是所修迴向 虛空界盡 衆生界盡 衆生業盡 衆生煩惱盡 我此迴向無有窮盡 念念相續 無有間斷 身語意業無有疲厭

또 선남자여, 모두 회향하는 것은 처음 예경으로부터 중생의 뜻에 따라 주는 모든 공덕을 온 법계 허공계의 온갖 중생에게 회향하여서 중생들이 항상 편안하여 병이나 고통이 없기를 원하며,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은 모두 성취되지 않고 선한 일은 빨리 성취되며, 온갖 나쁜 갈래의 문은 닫아 버리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은 열어 보이며, 중생들이 이미 지은 나쁜 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모든 고통은 내가 대신하여 받고, 그 중생들은 모두 해탈을 얻으며 필경에는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살이 이렇게 회향하는 일은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의 세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미혹이 끝나더라도 나의 회향은 끝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아니하지마는 몸과 말과 뜻의 업으로 하는 일은 조금도 고달프거나 싫어하지 않느니라.

<정원본 화엄경 권제40의 重頌 부분>

所有禮讚供養福, 請佛住世轉法輪, 隨喜懺悔諸善根, 迴向衆生及佛道。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한 복과 오래 계셔 법륜 굴리시길 청함과
따라서 기뻐하고 참회한 선근 중생들과 보리도에 회향합니다.

---

3) 원문은 『大正新修大藏經』(CBETA, T10, no. 293, p. 846, a29-c29), 《大方廣佛華嚴經》 卷40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에서 인용한 것이고 한글 번역은 동국대 학술원의 한글대장경 검색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것이다. 이 사이트의 '보현행원품' 한글대장경은 운허스님의 번역에 기초를 둔 것이다.

一切如來有長子, 彼名號曰普賢尊, 我今迴向諸善根, 願諸智行悉同彼。
願身口意恒清淨, 諸行剎土亦復然, 如是智慧號普賢, 願我與彼皆同等。
我為遍淨普賢行, 文殊師利諸大願, 滿彼事業盡無餘, 未來際劫恒無倦。
我所修行無有量, 獲得無量諸功德, 安住無量諸行中, 了達一切神通力。
文殊師利勇猛智, 普賢慧行亦復然, 我今迴向諸善根, 隨彼一切常修學。
三世諸佛所稱歎, 如是最勝諸大願, 我今迴向諸善根, 為得普賢殊勝行。

모든 여래의 맏아드님은 그 이름은 누구신가 보현보살님
내가 이제 모든 선근 회향하오며 바라노니 행과 지혜 그와 같고저
몸과 말과 마음까지 늘 깨끗하고 모든 행과 세계들도 그러하오며
이런 지혜 이름하여 보현이시니 나도 항상 저 보살과 같아지이다.
나는 이제 보현보살 거룩한 행과 문수보살 크신 서원 깨끗이 하고
저 사업을 남김 없이 원만하오며 오는 세월 끝나도록 싫어 않으리.
나의 닦는 공과 행이 한량이 없어 그지없는 모든 공덕 모두 이루며
끝이 없는 온갖 행에 머물러 있어 가지가지 신통의 힘 분명히 알며
문수보살 용맹하고 크신 지혜와 보현보살 지혜의 행 그지없나니
내가 이제 모든 선근 회향하여서 그이들을 항상 따라 배워 보리라.
삼세의 부처님들 칭찬하오신 이와 같이 훌륭하고 크신 서원들
내가 이제 모든 선근 회향하여서 보현보살 훌륭한 행 얻으렵니다.

若人於此普賢願, 讀誦受持及演說, 果報唯佛能證知, 決定獲勝菩提道。
若人誦此普賢願, 我說少分之善根, 一念一切悉皆圓, 成就眾生清淨願。
我此普賢殊勝行, 無邊勝福皆迴向, 普願沈溺諸眾生, 速往無量光佛剎。
어떤 이가 보현보살 이 서원들을 읽고 외워 받아 갖고 연설한다면
그 과보는 부처님이 아시오리니 결정코 보리도를 얻게 되리라.
어떤 이가 이 서원을 읽고 외우면 그 선근의 일부분을 내가 말하리니
잠깐 동안 모든 공덕 다 원만하고 중생들의 깨끗한 원 성취하리라.
바라건대 보현보살 거룩한 행의 그지없는 훌륭한 복 회향하여서
삼계 고해 빠져 있는 모든 중생들 아미타불 극락세계 어서 가소서.

–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글대장경 시스템(동국대 역경원)譯[4]

4) 이 글의 한글 번역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에서 인용한 것이다.

2.2. 최행귀의 한역시 〈보개회향송〉

翰林學士 內義承旨 知制誥 淸河 崔行歸는 균여대사를 깊이 존경하였던 동시대 인물로서 보현십원가가 지어지자 이를 한시로 번역하였다.[5] 최행귀는 우리나라의 선비는 한시를 이해하지만 중국의 선비는 우리나라의 노래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과 부처님을 우러르고 귀의하게 한 균여의 의지에 기대어 중생들이 불교에 귀의하기를 원했다. 또한 향가가 너무 쉬워 노래의 原義를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폐단을 보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보현십원가를 번역하였다.

그러나 최행귀의 한역시는 단순히 균여의 보현십원가를 직역한 것이 아니라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역한 부분도 있고 직역한 부분도 있다(金相日 1989, 조연숙 2005). 따라서 균여의 보현십원가를 해독하기 위해서 최행귀의 한역시에 전적으로 기대는 것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최행귀의 한역시는 여전히 균여 향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자료임은 분명하다. 아래에서 보개회향가의 해독에 앞서 최행귀의 한역시인 보개회향송을 제시한다.[6]

---

5) 『均如傳』 제8 〈譯歌功德分〉 崔行歸의 序文에 均如의 鄕歌를 漢譯하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漢譯詩가 이루어진 때가 967년이므로 〈普賢十願歌〉는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창작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均如傳』에 실린 균여 향가가 어느 시기의 표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최근 제42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황선엽 선생님은 균여 향가에 균여 자신의 서문이 있는 점, 소위 落句에 '城上人, 打心, 病吟' 등 구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표현 등을 근거로 균여 향가가 창작과 동시에 향찰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상당히 일리있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균여 향가가 창작과 동시에 서사되었을 가능성과 『균여전』에 실린 균여 향가의 서사 시기는 또 다른 문제로 앞으로 더 정확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6) 역시의 번역은 崔喆·安大會(1988)에서 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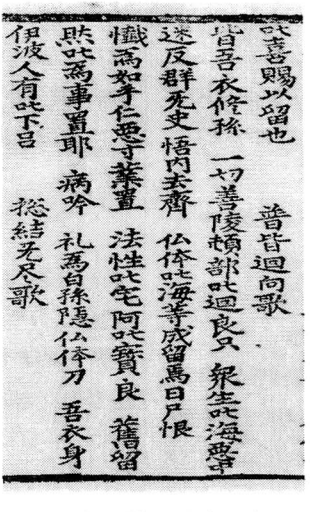
從初至末所成功,	처음부터 끝까지 이룬 공덕을
廻與含靈一切中.	靈을 가진 모두에게 돌려주리라
咸覩得安離苦海,	모든 사람이 안락을 누려 苦海를 벗어나고자 하는데
惣斯消罪仰眞風.	그 길은 죄를 씻고 참된 교화를 우러러보는데 있도다.
同時共出煩塵城,	모두 함께 번뇌의 세계에서 뛰쳐나와
異體咸攸法性宮.	다른 만물까지도 모두 진리의 궁전에 들어가기를.
我此至心廻向願,	나의 이 지극한 廻向의 서원은
尽於來際不應終.	未來際가 다하도록 그치지 않으리

2.3. 균여의 보개회향가

아래는 보현십원가 제8수인 보개회향가의 全文과 月精寺 소장 재조대장경 인출본『釋華嚴敎分記圓通鈔』의 권제10에 실려 있는 균여 향가 중 보개회향가의 이미지이다.

普皆廻向歌

皆吾衣修孫
一切善陵頓部叱迴良只
衆生叱海惡中
迷反群无史悟內去齊
仏体叱海等成留焉日尸恨
懺為如乎仁□寸業置
法性叱宅阿叱寶良
□留然叱為事置耶
病吟 礼為白孫仏体刀
吾衣身伊波人有叱下呂



〈그림1〉 普皆廻向歌 全文

보개회향가의 배경이 되는 정원본『화엄경』권제40 중 보개회향원의 長行과 重頌 부분, 그리고 보개회향가의 한역시인 최행귀의 보개회향송을 대비한 표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균여 향가의 해독에서 최행귀의 한역시, 정원본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은 가장 기본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자료이기는 하지만 최행귀의 한역시가 보현십원가의 직역이 아니라는 사실은 보개회향가에 국한하더라도 한역시인 보개회향원 부분 중 '我此至心迴向願 尽於來際不應終'이 보원십원가에는 없으나 보현행원품의 본문에는 '我此迴向 無有窮盡 念念相續 無有間斷 身語意業 無有疲厭'과 같은 내용이 있고, 보원십원가의 제9과와 제10구에 해당하는 '病吟 礼為白孫 仏体刀 吾衣身伊波人有叱下呂' 부분이 한역시인 보개회향원은 물론 보현행원품의 장항 부분에도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균여 향가	한역시	정원본 화엄경 보현행원품	
〈보개회향가〉	〈보개회향송〉	장항	중송
01 皆吾衣修孫 02 一切善陵	從初至末所成功	從初禮拜乃至隨順 所有功德	所有禮讚供養福 請佛住世轉法輪 隨喜懺悔諸善根
02 頓部叱迴良只	廻與含靈一切中	皆悉迴向盡法界虛空 界一切衆生	迴向衆生及佛道
03 衆生叱海惡中 04 迷反群无史悟內去齊 05 仏体叱海等成留焉 日尸恨 06 懺為如乎仁口寸業置 07 法性叱宅阿叱寶良 08 口留然叱為事置耶	咸覩得安離苦海 惣斯消罪仰眞風 同時共出煩塵城 異體咸攸法性宮	願令衆生 常得安樂 無諸病苦 欲行惡法 皆悉不成 所修善業 皆速成就 關閉一切諸惡趣門 開示人天涅槃正路 若諸衆生因其積集諸 惡業故 所感一切極 重苦果 我皆代受 令彼衆生	親近供養諸佛海

		悉得解脫 究竟成就 無上菩提 菩薩 如是 所修 迴向	
	我此至心廻向願 尽於來際不應終	我此迴向 無有窮盡 念念相續 無有間斷 身語意業 無有疲厭	
09 病吟 礼為白孫仏 体刀 10 吾衣身伊波人有叱 下呂			

3. 보개회향가에 대한 선행 해독의 검토

3.1. 皆吾衣修孫

① 므릇 나의 <u>닥손</u><小>
② 한 내ᄋᆡ 닷ᄀᆞᆯ손<梁>
③ 한 내ᄋᆡ <u>닷손</u><池>
④ 다 내 닷ᄀᆞ손<홍>
⑤ 몯 나ᄋᆡ 닷온<李>
⑥ 여러 무리 닷ᄀᆞᆯ<정>
⑦ 개 나이 <u>닭손</u><善>
⑧ 모든 내 닷ᄀᆞᆯ 손<俊>
⑨ 모든 내ᄋᆡ 닷ᄀᆞᆯ손<完>
⑩ 모든 나ᄋᆡ 다ᄉᆞ리손<兪>
⑪ 모든 내 닷글손<姜>
⑫ 몯 나ᄋᆡ 닷ᄀᆞᆯ 손<炯>
⑬ 모든 우리 다ᄉᆞᆨ손<류>
<제안> 다 나ᄋᆡ 닭은 손

보개회향가 제1구의 '皆吾衣修孫'의 의미 해석은 연구자들 사이에 대체로 일치하는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각 語句의 독법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다. '皆'는 해당 예와 〈請佛住世歌〉의 '<u>皆</u>仏体必于化緣動賜隱乃', '伊知<u>皆</u>矣爲米', 〈常隨佛學歌〉의 '我仏体<u>皆</u>往焉世呂修将來賜留隱', '然叱<u>皆</u>好尸卜下里', '<u>皆</u>仏体置然叱爲賜隱伊留兮' 등 모두 6번 쓰였다. 제1구의 '皆'는 제2구의 '一切善陵'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해석하는 방법과 제1

구의 '修'를 수식하는 부사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위의 '皆'의 예 중에서 확실하게 관형어로 쓰인 것은 '皆仏体'와 '皆仏体置' 등 2개이며 부사와 관형사 모두 해석 가능한 것이 〈보개회향가〉의 해당 예와 '皆往焉世呂'이고 '伊知皆矣爲米'와 '然叱皆好尸卜下里'는 해독에 이견이 있는 예이다. 보현십원가에는 '皆'에 말음이 표기가 된 예가 없기 때문에 독법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 한편 석독구결에서 '皆'는 현토되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皆ヒ'으로 표기된다.

(1) 가. 一切法ヲ 皆ヒ 幻 {如}ネノ ㄱㅅㄹ 了ソアㅅㅠ{故}リケト
<화소 26:16-19>
나. 一切 行願レ 皆ヒ 得ラホ 具足ソカ <화엄 02:12-17>
다. 花 上ラナ 皆ヒ 量 無ヒㄱ 國土リ 有ヒラㄱム
<구인 02:04-06>
라. 悉ラ 皆 成就ソカソラ 大リ 歡喜 慶樂(ソネㄱㅅㅠ)故ノ
(悉皆[42(·)]成就[55(·),22(·)]大[22~32(·)]歡喜慶樂
[43(|)]故[21(·)]) <금광 06:23-25>

석독구결의 '皆ヒ'을 참조하더라도 '皆ヒ'을 어떻게 읽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균여 향가에 나오는 '皆'의 독법을 상정하기란 여전히 어렵다. 석독구결의 '皆ヒ'에 비중을 두고 '몯'으로 읽는 방법과 15세기 언해에서 동일한 의미의 관형어로 쓰인 '한, 모든'과 부사 '다'로 읽는 방법이 있는데, '몯'은 문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뜻 내키지 않고 후자는 15세기의 '모든'은 주로 '諸'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채택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皆'는 관형사로만 해석될 경우에는 金完鎭(1980), 兪昌均(1994) 등을 따라 '모든'으로 읽는 쪽을 택하고 〈상수불학가〉의 '皆往焉世呂'나 〈보개회향가〉 제1구 '皆吾衣修孫'의 '皆'와 같이 부사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로 읽는 견해를 따른다.

〈보개회향가〉 제1구의 '吾'에 대한 독음은 류렬(2003)이 [우리]로 읽

은 것을 제외하면 모두 [나]로 보고 있다. 현대국어는 물론 15세기 국어에서 1인칭 대명사는 '나'뿐이어서 '吾'를 [나]로 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吾'의 독음이 [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보현십원가에서 '吾'가 쓰인 용례는 '吾衣身'〈隨喜功德歌〉, '吾衣修叱孫丁'〈隨喜功德歌〉, '吾焉'〈請轉法輪歌〉, '吾里心音水淸等'〈請佛住世歌〉, '吾焉'〈常隨佛學歌〉, '吾置'〈恒順衆生歌〉, '吾衣'〈普皆廻向歌〉, '吾衣身'〈普皆廻向歌〉, '吾衣願'〈總結無盡歌〉 등 9번이다. '吾'가 쓰인 예 중에서 〈청불주세가〉의 '吾里心音水淸等'의 '吾'는 '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석독구결의 예 중에는 아래의 (2가)와 같이 '吾'를 [우]로 읽은 예가 있다.

(2) 가. {吾}又尸 曹ㄱ 今ㅅㄱ{者} 各ㄱ亦 求ノ尸 所乙 {有}ヰロセ ノㄱ刂四 願ロ尸入ㄱ 普刂 慈乙 垂刂加下ハ 得ㄱ亦 滿足 令刂ロハ加立ㅅㄱ <화소12:12-13>

나. 吾ㄱ 今ㅅㄱ 先ㄱ 諸ㄱ 菩薩 {爲}ㄱ ㅋ 佛果し 護ノ今セ 因緣ㅣ 十地セ 行し 護ノ今セ 因緣ㅣノし 說白ㄱ ㅋセ ㅣ <구인03:18-19>

(2가)의 '吾又尸'의 '又'은 '吾'를 [우]로 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비록 (2나)의 '吾ㄱ'의 '吾'를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석독구결 시기에 1인칭 대명사로 '우'가 쓰였다는 사실은 (2가)의 '吾又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균여 향가에서도 1인칭 대명사로 '우'가 있었고 석독구결에서도 1인칭 대명사로 '우'가 있었다는 사실은 명확히 알 수 있으나 '나'가 쓰였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1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한자 중 균여 향가에 쓰인 '我'가 '吾'와 대립하여 '나'와 '우'를 표기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균여 향가에서 '我'는 〈참회업장가〉의 '衆生界盡我懺盡'과 〈상수불학가〉의 '我仏体皆往焉世呂修将來賜留隱'의 두 예뿐이며 그나마 전자는 한문이어

서 향찰로 쓰인 '我'는 〈상수불학가〉의 예 하나뿐이다. 더군다나 유사 향가에서 1인칭 대명사로 '我'가 쓰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1인칭 대명사 '나'와 '우'와 한문의 '我'와 '吾'를 관련시키는 것도 좀 더 많은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다.

15세기 언해 자료에서는 1인칭 대명사로 '나'만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국어의 1인칭 대명사의 경우 '우'와 '나'가 쓰이다가 15세기 이전의 어느 시기에서 '나'로 통일되었고 '우'는 1인칭 복수대명사 '우리'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1인칭 대명사와 같은 요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새로 생성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균여 향가의 1인칭 대명사로 '나'와 '우'가 모두 쓰였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어느 경우에 '우'가 쓰였고 어느 경우에 '나'가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글에서는 '吾'의 독음을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나]로 읽는 견해를 따르고 있으나 [우]로 읽는 견해를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지적함과 동시에 여기서의 '吾'는 [우]로 읽는 견해를 취한다.

'修孫'의 '孫'은 의존명사로 보는 견해와 어미구조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기존의 균여 향가 해독자 중 小倉進平(1929)의 '닥손', 지헌영(1947)의 '닷손' 등은 '孫'을 어미구조체로 본 견해이고 梁柱東(1965), 金完鎭(1980), 姜吉云(2004) 등의 '닷ᄀᆞᆯ손'은 '孫'을 의존명사로 본 견해이다.

균여 향가에 쓰인 '孫'은 〈보개회향가〉의 해당 예를 제외하면 '南无仏也白孫舌良衣'〈칭찬여래가〉, '礼為白孫仏体刀'〈보개회향가〉, '修叱賜乙隱頓部叱吾衣修叱孫丁'〈수희공덕가〉 등 세 개의 예가 있다. 이 중 〈수희공덕가〉의 '修叱賜乙隱頓部叱吾衣修叱孫丁'는 '孫' 뒤에 '丁'이 결합되어 있다. '丁'의 특징을 밝히면 '孫'의 특징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균여향가에는 '丁'이 〈수희공덕가〉의 예 이외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석독구결에서는 '丁'과 같은 자형인 '丁'가 활발하게 쓰이는데 그 예를 제시하면 아래의 (3, 4)와 같다.

(3) 가. 何ᄀᆞ {等}ㅣ ᄉᆞᄀᆞᆯ {是}ㄹᆡ 事 有ᄒᆞᄀᆞᆫ ᄉᆞᄆᆞᆷ 故ᄋᆞᆫ {是}ㄹᆡ 事 有ᄒᆞᄀᆞᆫᄃᆞᆺ ᄉᆞᆷᄋᆞᄆᆞ <화소01:17>

나. 善ᄒᆞᄀᆞ{哉}ᄀᆞᆡ 佛子ᄃᆞᆯ 汝ᄀᆞ …… 是 {如}ᄒᆞᄋᆞᄆᆞᄒᆞ 義ᄂᆞᆯ 問ᄉᆞᄒᆞᄀᆞᆫᄃᆞᆺ <화엄02:10-12>

다. 時ᄒᆞᆫ 波斯匿王ᄀᆞ 言ᄂᆡᄅᆞ 善ᄂᆡᄅᆞᄀᆞᆫᄃᆞᆺ 大事ᄒᆞ 因緣ᄆᆞ 故ᄂᆞᄉᆞ ᄂᆡᄅᆞᄐᆞᄀᆞᄅᆡᄀᆞᆫᄃᆞᆺᄉᆞᄅᆞ <구인03:20>

라. 菩薩地ᄅᆞ ᄒᆞᆫ 當ᄒᆞᅀᅡ 說白ᄂᆞᄅᆞ 如ᄒᆞᄋᆞᄀᆞᄅᆡᄀᆞᆫᄃᆞᆺ <유가04:09-10>

(4) 가. 菩薩摩訶薩ᄀᆞ {是}ㄹᆡ {如}ᄒᆞᄋᆞᄀᆞ 念ᄀᆞᆯ 作ᄉᆞᄒᆞᄅᆞᆫᄃᆞᆺ <화소08:19>

나. 謂ᄂᆞᆺ 非ᄉᆞᆺᄅᆡㅣ 二諦ㄹᆡ 一ㄹᆡㅣᄉᆞᄅᆞᆫᄃᆞᆺ 二 非ᄉᆞᆺᄀᆞᄅᆡᄅᆞᄉᆞᄒᆞᄀᆞ 何ᄒᆞᄆᆞ 得ᄅᆞᄀᆞᆨ{可}ᄒᆞᄋᆞᄀᆞᄅᆞᄂᆞᄀᆞᄒᆞᄉᆞᄆᆞᆷᄆᆞ <구인15:05>

다. 善男子ᄃᆞ 是ᄀᆞᆯ 名ᄒᆞ 菩薩摩訶薩ㄹᆡ 羼提波羅蜜ᄀᆞᆯ 成就ᄉᆞᄅᆞᆫᄃᆞᆺᄂᆞᄀᆞᄒᆞᄀᆞᄅᆡㅣ <금광03:09-10>

라. 利養ᄋᆞᆫ 恭敬ᄋᆞᆫ 稱譽ᄋᆞᆫᄂᆞᄅᆞᄀᆞᆯ {爲}ᄉᆞᄅᆞᄅᆞᆫᄃᆞᆺᄀᆞᄅᆞ 不ᄎᆞᄉᆞᄅᆞᄉᆞᄅᆞᄉᆞᄉᆞᄒᆞᄅᆡㅣ <유가04:19>

석독구결의 예인 (3, 4)를 보면 'ᄅᆞᆫᄃᆞᆺ'는 항상 동명사어미 'ᄀᆞ'이나 'ᄅᆞ' 뒤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희공덕가〉의 '修叱孫丁'는 '孫' 뒤에 '丁'이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보현십원가에 쓰인 '丁'과 석독구결의 'ᄅᆞᆫᄃᆞᆺ'를 같은 기능을 가진 형태라고 간주할 수 있다면 이 예는 보현십원가의 '孫'이 어미구조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ㅅ+오+ㄴ'으로 분석되는 '孫'의 구성 요소 중 'ㄴ'은 (3)에 쓰인 석독구결의 예 'ᄀᆞᄅᆞᆫᄃᆞᆺ'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독구결의 예는 보현십원가에 쓰인 '孫'을 의존명사가 아닌 어미구조체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 〈수희공덕가〉의 '修叱孫丁'도 생략 표기로 보면 이 예의 '孫'도 어미구조체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修叱孫丁'를 '닦+(ᄋᆞᆫ/ᄋᆞᆯ)손+(이+ㄴ)+뎌'로 보고 괄호로 묶인 'ᄋᆞᆫ/ᄋᆞᆯ'과 '이+ㄴ'은 생략된 표기로 보면 '孫'은 의존명사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孫'을 의존명사로 보지 않고 'ㅅ+오+ㄴ'으로 된 어미구조체로 볼 경우 'ㅅ'과 '오'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현재까지의 고대어 자료에서 '孫'에 등장하는 'ㅅ'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孫'을 어미구조체로 보는 견해 또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孫'이 어미구조체이라면 'ㅅ+오+ㄴ' 중에서 '오'는 보문명사를 수식하는 소위 '대상'의 '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보현십원가에 쓰인 '孫'의 용례 중 〈보개회향가〉의 '皆吾衣修孫一切善陵'과 '礼為白孫仏体刀', 〈수희공덕가〉의 '修叱賜乙隱頓部叱吾衣修叱孫丁' 등은 각각 '내가 닦은 一切 善陵', '예를 받는 부처', '내가 닦는 것' 등으로 '一切 善陵, 부처, 것' 등은 각각 '닦-, 예를 받-, 닦-' 등의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칭찬여래가〉의 '南无仏也白孫舌良衣'은 '나무불이라 사뢰는 혀에'로 해석되므로 '혀'는 '사뢰-'의 주체이지 목적이나 대상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예는 '孫'을 어미구조체로 보려는 견해의 반례가 된다.[7]

보현십원가의 '孫'을 의존명사로 보는 견해에서는 동사 어간과 의존명사 '孫' 사이에 동명사어미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孫'을 의존명사로 본 견해들은 모두 선행하는 동사와 '孫' 사이에 동명사어미 '-ㄹ/을'이 생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생략된 관형사형 어미는 '-ㄴ/은'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국어에서 동사에 후행하는 동명사어미 '-ㄹ/을'은 현재 또는 미래에 쓰이고 '-ㄴ/은'은 과거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의 (5, 6)은 석독구결에 쓰인 동명사어미 '-尸'과 '-ㄱ'의 예이다.

(5) 가. 大王下 若ヒ 菩薩 上十 見ㄱ尸 所ㄱ {如}ㅣㅅㄱ
<구인 14:11>

7) 균여 향가의 '孫'을 의존명사로 보면 15세기의 '-ᄋᆡ손ᄃᆡ' 등과 관련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ᄋᆡ손ᄃᆡ'의 '손' 또는 '손ᄃᆡ'도 분석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석독구결에 쓰이는 의존명사와 아울러 더 고찰해야 할 부분이다.

나. 凡ᄃᆞ 受ᄀᆞᄆᆞ 所ᄉᆞ 物ᄉᆞᄆᆞᄉᆞᄇᆞᄆᆞᄉᆞᄂᆞᆨᄀᆞ 悉ᄉᆞ {亦}ᄀᆞᆫ {是}ᄅᆡ {如}ᄒᆞᄂᆞᄋᆞᄆᆞᄃᆞᆫᄀᆞ <화소09:09>

다. 梵王ᄉᆞᄂᆞᆫᄌᆞᄃᆞ{之} 守護ᄒᆞᄂᆞᆫ 恭敬ᄒᆞᄂᆞᆫ 供養ᄒᆞᄂᆞᆫᄂᆞᆫᄆᆞ 所ᄂᆞᆫ 得ᄀᆞ <화엄 02:03>

라. 是 故ᄆᆞ 慇懃ᄒᆞᆨ 種種ᄉᆞ 衣服ᄀᆞ 飮食ᄀᆞ 諸 坐臥具ᄀᆞ 病緣醫藥ᄀᆞᄂᆞᆫᄆᆞ 供身 什物ᄋᆞ 奉施ᄂᆞᆫᄆᆞᄉᆞᄋᆞᆫᄀᆞ <유가03:13>

마. 當ᄉᆞ 知ᄀᆞᄋᆞᆫ 略ᄒᆞ 說ᄆᆞᄀᆞ {於}三位ᄉᆞ 中ᄀᆞᆫ 十種ᄉᆞ 瑜伽ᄋᆞ 修習ᄂᆞᆫᄀᆞ 對治ᄂᆞᆫᄆᆞ 所ᄉᆞ 法 有ᄂᆞᄀᆞᄅᆡᄀᆞᄃᆞ <유가08:01>

(6) 가. 我ᄀᆞ 今ᄂᆞᄀᆞ 宜ᄀᆞ 彼ᄃᆞ 求ᄂᆞᆫᄀᆞ 所ᄋᆞ 隨ᄀᆞᆨ 其 意ᄋᆞ 充滿ᄉᆞᄅᆡᄀᆞᄀᆞ{應}ᄉᆞᄂᆞᄀᆞᄅᆡᄀᆞᄃᆞ <화소 11:14-15>

나. 諸佛如來ᄆᆞ 說ᄇᆞᆨᄂᆞᆫᄀᆞ 甚深法ᄋᆞ (諸佛如來[15~25(-)]說[33(··)]甚深法[34(·),구결자(ᄋᆞ)]) <금광03:25>

(5가)의 '見ᄒᆞᆫᄆᆞ 所ᄀᆞ'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如上所見)'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현재 사실을 표현하고 있고 (5다)의 '供養ᄂᆞᆫᄀᆞᆫᄂᆞᆫᄆᆞ 所ᄂᆞ'은 '梵王 등이 供養하는 것을 얻으며'로 해석되므로 역시 현재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동명사형 '-ㄱ'은 (6가, 6나)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과거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6가)의 '彼ᄀᆞ 求ᄂᆞᆫᄀᆞ 所ᄋᆞ'은 '그가 구한 바를'로 해석되며, (6나)의 '諸佛如來ᄆᆞ 說ᄇᆞᆨᄂᆞᆫᄀᆞ 甚深法ᄋᆞ'은 '여러 부처님이 說한 깊고 깊은 법'으로 해석된다. 균여 향가에서 관형사형 '-ᄋᆞᆯ/을'과 '-ᄋᆞᆫ/은'의 쓰임을 보면 아래의 (7, 8)과 같다.

(7) 가. 心未 筆留 慕呂白乎隱 仏体前衣 <礼敬諸佛歌>

나. 拜內乎隱 身萬隱 法界 毛叱所只 至去良 <礼敬諸佛歌>

다. 刹刹每如 邀里白乎隱 法界 滿賜隱 仏体 <礼敬諸佛歌>

라. 法界 滿賜仁 仏体 <廣修供養歌>

마. 皆 仏体置 然叱爲賜隱 伊留兮 <常隨佛學歌>

(8) 가. 向屋賜尸 朋 知良 闍尸也 <請佛住世歌>

나. 命乙 施好尸 歲史中置 <常隨佛學歌>

다. 仏体 爲尸如 敬叱好叱等耶 <恒順衆生歌>

(7)을 보면 균여 향가에서 '-은/은'은 동사에 연결되어 과거 사실을 수식하고 있다. (7가)의 '慕呂白乎隱 仏体'는 이미 그린 행위가 끝났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7라)의 '法界 滿賜仁 仏体'도 이미 부처님은 法界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올/을'은 (8나)의 '命乙 施好尸 歲史中置'이나 (8다)의 '仏体 爲尸如 敬叱好叱等耶'에서처럼 현재나 미래의 사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皆 吾衣 修孫 一切 善陵'에서 '修孫'은 내가 닦은 功德이나 善根을 의미함으로 과거 사실을 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된 관형사형은 '-올/을'보다는 '-은/은'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석독구결의 '-ㄱ'과 균여 향가의 '-隱'은 과거 사실을 수식하는 데 사용되는데, 〈보개회향가〉에서 말하는 廻向은 내가 닦은 공덕을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이므로 '修孫'은 과거 사실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은/은'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 '닦은 손'으로 읽을 수 있다.[8]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皆吾衣修孫'의 '孫'은 어미구조체일 가능성도 있고 의존명사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현재로서는 두 견해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설명의 부담의 관점에서 '孫'을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존명사를 표기한 것으로 보고 해석한다.[9]

보현행원품에서 말하는 廻向이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닦은 功德'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자신은 功德을 닦으면서 한편으로는 중생에게 자신이 닦은 공덕을 회향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광덕 · 박성배 2008) 그렇다면 〈보개회향가〉의 제1구와 제2

8) 균여 향가의 '孫'이 어미구조체라면 '孫'에 포함된 동명사어미는 '-은/은'이 분명하므로 비록 견해는 다르지만 '닦은손'으로 분석하는 것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9) 南豊鉉(2011)과 카마시타 케이고(2011)은 모두 '孫'을 어미구조체로 파악하고 있다.

구의 '皆吾衣修孫一切善陵'은 지금까지 자신이 닦은 공덕이나 선근인지 아니면 지금도 닦고 있는 공덕이나 선근을 반영한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여기에는 균여스님이 보현십원가를 지어 백성들에게 노래 부르게 했을 때 보현행원품의 깊은 뜻을 그대로 담아 노래를 지었는지 아니면 일반 백성들이 알기 쉽게 노래를 지었는지의 문제도 관련된다. 필자는 균여스님이 보현십원가를 지은 뜻은 백성의 교화에 있으므로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修孫'의 '孫'을 의존명사로 보고, '修'와 '孫' 사이에는 동명사어미 '-온'이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3.2. 一切善陵頓部叱迴良只

① 一切 善陵 頓部ᄅᆞᆯ 돌녀<小>	② 一切善 頓部ㅅ 도ᄅᆞ혀<梁>
③ 一切 ᄉᆞᄅᆞ 頓部ㅅ 도ᄅᆞ혀<池>	④ 일체(一切) 션릉(善陵) 돈부(頓部)르 도ᄅᆞ디<홍>
⑤ 一切 ᄉᆞᄅᆞᆫ ᄃᆞᆺᄆᆞᆺ 돌아<李>	⑥ 일체 서른 돈주비ㅅ 도라져<정>
⑦ 잃체 이론 돈북 도라기<善>	⑧ 一切 이든 돈부ㅅ 돌려ㄱ<俊>
⑨ 一切 ᄆᆞᄅᆞ ᄇᆞᄅᆞᄇᆞᆺ 돌악<完>	⑩ 一切 이드른 주빗 도ᄅᆞ락<兪>
⑪ 일체 사른 돔봇 돌악<姜>	⑫ 一切 善 두듥 몰ᄇᆞᆺ 돌악<炯>
⑬ 일체션릉 돈부루도라가<류>	<재안> 一切 善陵 頓部叱 돌이악

〈보개회향가〉 제2구 '一切 善陵 頓部叱 迴良只'은 보현보살 자신이 닦은 공덕을 중생에게 전부 돌려주는 내용을 표현한 대목이다. 〈보개회향가〉가 노래하고 있는 廻向은 지금까지 내가 쌓은 공덕이나 선근을 衆生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므로 '一切 善陵'은 '내가 쌓은 모든 功德이나 善根'을 표현한 어구가 된다. '善陵'은 〈총결무진가〉에서 '善陵'으로, 〈수희공덕가〉에서는 '善陵等'로 표현된다. 향가에서 '等'은 'ᄃᆞᆯ'로 音借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善陵等'의 '等'도 복수접미사를 표기했을 가능성과

'善陵'이 나타내는 명사의 말음 표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善陵' 또는 '善陵等'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10] 이 글에서는 '善陵'의 독음을 미상으로 남겨 둔다. '一切善陵'의 '善陵'이 구체적으로 '功德'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善根'을 가리키는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보현행원품의 장항에는 '言普皆迴向者 從初禮拜乃至隨順 所有功德皆悉迴向(모두 회향하는 것은 처음 예경으로부터 중생의 뜻에 따라 주는 모든 공덕을)'라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은 '功德'으로 해석되지만 보개회향원의 중송에서는 '所有禮讚供養福 請佛住世轉法輪 隨喜懺悔諸善根 迴向衆生及佛道(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한 복과 오래 계셔 법륜 굴리시길 청함과 따라서 기뻐하고 참회한 선근 중생들과 보리도에 회향합니다.)' 구절과 '我今迴向諸善根(내가 이제 모든 선근 회향하오며)'이 3회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은 '善根'이 된다. '功德'과 '善根'은 중생에게 돌려주는 대상으로서 모두 불교 교리에 부합되는 것이며 보현행원품의 해당 문맥에서는 동의어로 보이지만 〈보개회향가〉의 '一切 善陵'의 '善陵'에 부합되는 단어를 굳이 지적하라면 '功德'보다는 '善根'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金星周 2011).

'頓部叱'은 균여 향가에서 '頓部叱'의 형태로 4회, '頓叱'의 형태로 2회 나오는데 문맥적 의미는 대체로 '전부, 다' 또는 '문득'의 의미에 부합되지만 그 독법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제시된 향가 연구가들도 다양한 독음을 제시하였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견해를 내세우기 어렵다. 독음은 미상으로 남겨 둔다.

'迴良只'는 '迴'와 '良只'로 분석되며 문맥적 의미는 '자신이 쌓은 善根 또는 功德을 중생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보현행원품의 장항에서 '從初禮拜乃至隨順 所有功德'으로 표현되었고 중송에서 '所有禮

10) '善陵'을 'ᄆᆞᄅᆞ'로 읽은 견해(金完鎭 1980), '善 두듥'으로 읽고 '善業의 언덕'이란 뜻으로 풀이한 견해(池炯律 2007:228) 등의 견해가 있다.

讚供養福 請佛住世轉法輪 隨喜懺悔諸善根'으로 표현되어 있다. 崔行歸의 한역시에서는 '從初至末所成功'으로 표현되었다. 중생에게 돌려줄, 자신이 지금까지 쌓은 善根 功德이며 균여 향가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현십원가의 〈보개회향가〉를 읊기 전까지의 제1수 〈칭찬여래가〉에서 제9수 〈항순중생가〉까지를 읊으면서 행한 모든 善根 功德이 된다. 그러므로 '廻良只'의 '廻'는 '一切 善陵'을 목적어로 가지는 타동사이어야 한다. '廻'의 의미에 부합되면서 타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사인 '돌-'은 타동사 즉 사동사가 되어야 한다. 석독구결에서 사동접미사는 '-ㅣ-'와 '-ᄉᆞ-'가 확인되며 15세기 국어에서는 '-이-', '-오/우-' 이외에 '-ᄋᆞ/오-'가 확인된다. 이들 중 '廻良只'에서 어떤 사동 접미사가 사용되었는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廻良只'의 해독에서 梁柱東(1965), 金完鎭(1980) 등 대부분은 향가 연구가들은 '도ᄅᆞ히-' 또는 '돌ᄋᆞ-'로 해석하고 있다. 15세기에 화석형으로 남아 있는 사동접미사 '-ᄋᆞ/으-'가 '돌-'에 파생되어 '돌ᄋᆞ-'를 형성하거나 또는 이 어형에 다시 사동접미사 '-히-'가 연결된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廻良只'을 '돌ᄋᆞ-'로 보면 '-良只'이 연결되어 사동접미사가 '良'에 의해 표기된 사실도 설명할 수가 있다.

균여 향가의 사동사 표현으로는 '仏前灯乙 直体良焉多衣'〈광수공양가〉, '灯油隱 大海 逸留去耶'〈광수공양가〉, '煩惱熱留 煎将來出米'〈청전법륜가〉, '世呂中 止以友白乎等耶'〈청불주세가〉, '大悲叱 水留 潤良只'〈항순중생가〉, '一切善陵頓部叱廻良只'〈보개회향가〉, '迷反 群 无史 悟內去齊'〈보개회향가〉 등이 있다. 〈광수공양가〉의 '直体良焉多衣', '逸留去耶'나 〈청불주세가〉의 '止以友白乎等耶'를 보면 '体', '留', '以友' 등의 차자가 사동접미사를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나머지 사동으로 해석되는 차자도 사동접미사가 표기하고 있는지가 이 부분의 관건이다. 필자는 균여 향가에서 사동접미사는 항상 표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항순중생가〉의 '潤良只'은 '적시어'로 해석되는 사동 표현이 분명하며 〈보개회향가〉의 '廻良只', '悟內去齊'도 각각 '돌리어'와

'알리고자'로 해석되는 사동 표현이 분명한데 이들 차자에는 사동접미사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 〈보개회향가〉의 동사 '迴-'와 〈항순중생가〉의 '潤-'이 모두 어미 '-良只'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는 사동접미사 '-ᄋᆞ/으-'가 있었으나 뒤에 연결되는 '-良只'의 '아' 모음 때문에 사동접미사 '-ᄋᆞ/으-'가 탈락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균여 향가의 '-良只'은 '吾焉 頓叱 進良只'〈청전법륜가〉, '身靡只 碎良只 塵伊 去米'〈상수불학가〉, '他道 不冬 斜良只 行齊'〈상수불학가〉 등의 '進良只, 碎良只, 斜良只'과 같이 使動이 아닌 主動으로만 해석되는 예들도 있다. 이 예들은 각각 '나는 문득 나아가서', '몸이 부숴져 티글이 되어 감에', '他道로 빗나가지 않고자' 등으로 해석되므로 사동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보개회향가〉의 '迴良只'에서 '良只'가 사동접미사 표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는 〈보개회향가〉의 '迴良只'과 〈항순중생가〉의 '潤良只'에서는 사동접미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청전법륜가〉의 '進良只', 〈상수불학가〉의 '碎良只'와 '斜良只'에서는 使動이 아닌 主動을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 된다. 그러나 동일한 표기 '良只'이 한편으로는 사동을 표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동을 표현하는 견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한 〈보개회향가〉의 '悟內去齊'에서 '內'를 사동접미사 또는 사동접미사를 포함한 차자로 보는 견해는 현재 '內'의 정체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선어말 어미나 그와 유사한 범주로 보는 '內'를 유독 '悟內去齊'에서만 사동접미사를 표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런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11] 한편 〈청전법륜가〉의 '煎將來出米'의 경우 해석이 어렵기는 하지만 '出米'를 '냄에'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이 경우에 사동접미사가 표기되

11) '悟內'를 동사 어간으로 보아 '悟'에 'ᄭᅴ듣'을 배정하고 '內'는 'ᄂᆞ'로써 'ᄅᆞ'를 표기한 것으로 보고 '悟內'를 'ᄭᅴᄃᆞᄅᆞ-'로 보는 견해는 또한 '悟'에 대응되는 15세기 표현이 'ᄭᅴ듣-'이 아니라 '알-'인 점에서도 지지하기 어려운 견해라고 생각한다.

어 있지 않다. '出'은 '나-'의 표기에 사용되었고, '米'는 명사형어미와 어미의 결합 형태인 '미'의 표기에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여 향가에서 사동접미사는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균여 향가에서 사동접미사가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直体-', '逸留-', '止以友-' 등도 사동접미사를 적극적으로 표기한 것인지 아니면 동사 어간의 형태를 자세히 적으려는 노력의 소산으로 자연히 사동접미사에 해당하는 형태도 표기에 반영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균여 향가의 사동사는 사동접미사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고 〈보개회향가〉의 '廻良只'을 '-良只'이 쓰인 다른 표현들을 고려하여 사동접미사가 표기되지 않은 사동 표현으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廻良只'을 사동접미사가 표기되지 않은 사동 표현으로 볼 경우 어떤 사동사가 쓰인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廻良只'이 표현하는 사동사의 정체를 알기가 어렵다. 이 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석독구결에서 보편적으로 쓰인 사동접미사 '-ㅣ-'가 게재되어 있으나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廻良只'를 '돌이약'으로 읽는 견해를 취한다.

3.3. 衆生叱海惡中

① 衆生ㅅ 바롤여히<小>
② 衆生ㅅ 바돌악히<梁>
③ 衆生ㅅ 바돌아히<池>
④ 중싱(衆生)ㅅ 바롤아히<홍>
⑤ 衆生ㅅ 바ᄃᆞ익<李>
⑥ 즁싱ㅅ 바ᄅᆞ히<정>
⑦ 즁생ㄷ 바들애<善>
⑧ 衆生ㅅ 바돌아히<俊>
⑨ 衆生ㅅ 바돌아긔<完>
⑩ 衆生ㅅ 바돌아히<兪>
⑪ 衆生ㅅ 바덜 악아혜<姜>
⑫ 衆生ㅅ 바돌아긔<炯>
⑬ 즁싱시 바롤아히<류>
<제안> 衆生ㅅ 바돌아긔

普皆廻向歌의 제3구인 '衆生叱 海惡中'는 여러 선행 해석이 대부분 일치한다. 단지 '惡中'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통일되지 않은 정도이다. '惡中'는 일종의 중철 표기이다. 균여 향가에서 처격 표기는 '仏体前衣'〈禮敬諸佛歌〉, '舌良衣'〈稱讚如來歌〉, '一念惡中'〈稱讚如來歌〉, '緣起叱理良'〈隨喜功德歌〉, '仏會阿希'〈請轉法輪歌〉, '世呂中'〈請佛住世歌〉, '歲史中置'〈常隨佛學歌〉 등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처격 표기가 있으며 '惡中, 阿希'가 동시에 나와서 독음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아마도 균여 향가가 창작되고 서사되던 시기의 처격 조사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음상이 혼재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惡中'를 석독구결의 '-ㅇㅓ'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고 '-아긔'로 읽는다.

3.4. 迷反群无史悟內去齊

① 왼 물이 업시 ᄭᅢ닷게 ᄒᆞ야 가제<小>② 이ᄇᆞᆫ물 업시 알리가져<梁>
③ 이ᄇᆞᆫ 물 업시 알리가져<池> ④ 이ᄇᆞᆫ 무리 업시 알리가져<홍>
⑤ 입은 믈 업ᄉᆞ 깃ᄋᆡᄂᆞ아ᄃᆞᆫ<李> ⑥ 이븐 물 음시 ᄊᆡ내거져<정>
⑦ 이반 무라 없이 ᄭᅢ나가ᄭᅦ<善> ⑧ 이ᄇᆞᆫ 물 업시 ᄊᆡᄂᆞ가져<俊>
⑨ 이반 물 업시 ᄊᆡᄃᆞᄅᆞ거져<完> ⑩ 이븐 물 업시 ᄊᆡᄂᆞ가져<兪>
⑪ 이ᄇᆞᆫ물 업ᄉᆡ ᄭᅢ달=나가져<姜> ⑫ 입은 물 어시 ᄊᆡᄂᆞ거져<炯>
⑬ 이ᄇᆞᆫ물 업시알리가져<류> <제안> 입은 물 없이 알이ᄂᆞ가져

普皆廻向歌의 제4구인 '迷反 群 无史 悟內去齊'는 보현행원품의 "願令衆生 常得安樂 無諸病苦 欲行惡法 皆悉不成 所修善業 皆速成就 關閉一切諸惡趣門 開示人天涅槃正路 若諸衆生 因其積集諸惡業故 所感一切極重苦果 我皆代受 令彼衆生 悉得解脫 究竟成就 無上菩提 菩薩如是所修迴向"이나 최행귀의 한역시의 "咸覩得安離苦海 惣斯消罪仰眞風 同時共出煩塵城 異體咸攸法性宮"을 통해 大義를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迷反 群'은 苦海에 빠져 있는 중생을 가리키므로 보현보살은 이런 중생

이 없어지게 해야 한다. '迷反 群 无史'는 '입은 물 업시'로 읽고 '미혹한 무리 없이'로 해석한다.

'悟內去齊'의 '悟'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깨닫-' 또는 '알-'의 사동사로 해석하고 있다. 제4구의 문맥적 의미가 깨달음의 길에 서지 못한 미혹한 중생의 무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悟'를 '깨닫게 하다'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단지 현대 국어에서 '진리를 깨닫다'라는 표현이 균여 향가가 지어지고 불리는 시대에도 쓰였는지의 문제가 관건인데 15세기 언해문에서는 현대 국어의 '깨닫다'라는 의미로는 아래의 (9)와 같이 '알다'가 더 보편적으로 쓰인 점을 감안하면 '悟內去齊'의 '悟'는 '알다'의 사동사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9) 가. 上根은 頓悟ᄒᆞ야[悟ᄂᆞᆫ 알 씨라] <월석14:11ㄱ>
나. 사ᄅᆞᄆᆞ로 理를 알며 性을 보게 ᄒᆞ야시ᄂᆞᆯ(令人悟理見性이어시ᄂᆞᆯ) <金剛序5ㄴ>

'悟內去齊'의 '悟-'가 '알-'의 사동사일 경우에 사동접미사는 역시 '-ㅣ-, -ᄋᆞ-, -ᄋᆞ/으-' 등을 예상할 수 있으나 제2구의 '迴-'와 마찬가지로 가장 보편적인 사동접미사인 '-ㅣ-'가 쓰인 것으로 간주하고 '알이-'로 보고자 한다. '悟內去齊'의 '內'와 '去'는 선어말어미이고 '齊'는 어말어미이다. '內'는 정체를 파악하기 힘든 선어말어미 중의 하나인데, 借字의 訓讀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선어말어미나 어말어미의 '-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균여 향가에 쓰인 '內'는 대체로 현재 진행이나 상태 지속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일단 '-ᄂᆞ-'로 읽는다.[12] '去'는 석독구결의 '-ㅊ-', 15세기 국어의 '-거/어-'에 해당하는 것으

12) 南豊鉉(2009나)는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난 '內'를 合當法의 助動詞로 파악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필자는 차자표기 자료 전반에 걸쳐 사용된 '內'가 공통적인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吏讀에 쓰인 '內'와 鄕札에 쓰인 '內'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지, 또 이 '內'가 석독구결 자료에는 어떻게 대응

로 보고 확인법의 선어말어미로 보고자 한다. '齊'는 願望을 표현하는 어말어미로 제3구과 제4구의 '衆生叱 海惡中 迷反 群 无史 悟-'에 대한 바람을 나타낸다. 이것은 普賢行願品의 '願', 普賢行願頌의 '覬'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보현행원품의 '願'은 '令衆生常得安樂'으로부터 '菩薩如是所修迴向'을 지배하고 있어 普皆廻向歌의 종결어미 '-齊'와 지배 영역의 일치를 보여준다.

3.5. 佛體叱海等成留焉日尸恨

① 부텨 바롤ᄃᆞᆯ 닐운 날ᄒᆞᆫ<小> ② 부텨ㅅ 바ᄃᆞᆯ 이룬 날ᄒᆞᆫ<梁>
③ 부텨ㅅ 바ᄃᆞᆯ 이룬 날ᄒᆞᆫ<池> ④ 부텨ㅅ 바롤 이룬 날ᄒᆞᆫ<홍>
⑤ 븓ᄃᆡㅅ 바ᄃᆞ 일언 ᄂᆞᆯᄋᆞᆫ<李> ⑥ 부텨ㅅ 바ᄅᆞᄃᆞᆯ 이룬 날ᄒᆞᆫ<정>
⑦ 뿐다ㄷ 바ᄃᆞᆯ 이루안 날깐<善> ⑧ 佛體ㅅ 바ᄃᆞᆯ 이룬 날ᄒᆞᆫ<俊>
⑨ 부텨 바ᄃᆞᆯ 이론 나룬<完> ⑩ 佛體ㅅ 바ᄃᆞᆯ 이론 날ᄒᆞᆫ<兪>
⑪ 부텻 바덜 이루언 날ᄒᆞᆫ<姜> ⑫ 부텻 바ᄃᆞᆯ 일온 날ᄒᆞᆫ<炯>
⑬ 부텨시 바롤 이룬 날ᄒᆞᆫ<류> <제안> 부텨ㅅ 바ᄃᆞᆯ 일운 날ᄋᆞᆫ

제5구의 해독은 연구자들의 견해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海等'은 초기의 小倉進平(1929)의 '바롤ᄃᆞᆯ'과 姜吉云(2004)의 '바덜'을 제외하면 모두 '바ᄃᆞᆯ'로 읽고 있고 또 그것이 가장 타당한 독법으로 보인다.

'成留焉'은 '이룬'으로 읽는 견해와 '이론'으로 읽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이는 '일-'의 사동접미사를 '-우-'와 '-오-'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석독구결에서도 '-오/우-' 계열의 사동사는 ' 現ᄀᆞᄉᆞ, 具ᄀᆞᄌᆞᄉᆞ, 露ᄀᆞᄌᆞᄉᆞ' 등 '-ᄀᆞ-'로만 표기되며 15세기 국어에서는 '일-'의 사동사는 아래의 (10)과 같이 '일우-'가 우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두에 나오는 '內'에 대해서는 이 용(2011) 참조.

(10) 가. 成佛은 부텻 道理를 일우실 씨라 <석상 3:1ㄱ>
나. 이는 正憶念ᄒᆞ욘 福을 도아 펴샤 普賢ㅅ 알핏 마를 일우시니라 (此는 助宣正憶念福ᄒᆞ샤 以成普賢前說也ᄒᆞ시니라) <법화 7:180ㄴ>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의 사동사를 '일우-'로 보고 '成留焉'은 '일운'으로 읽는다.

3.6. 懺爲如乎仁惡寸業置

① 懺ᄒᆞ다온 모딘 業도<小>
② 懺ᄒᆞ다온 모딘 業두<梁>
③ 懺ᄒᆞ다온 머즌 業두<池>
④ 참(懺)ᄒᆞ다온 모딘 업(業)두<홍>
⑤ 懺ᄒᆞᄃᆞ온 궂은 業도<李>
⑥ 츰ᄒᆞᄃᆞ손 악ᄃᆞᆫ 업두<정>
⑦ 참까가온 모딘 업도<善>
⑧ 懺ᄒᆞ다온 머즌 業두<俊>
⑨ 懺ᄒᆞ더온 머즌 業도<完>
⑩ 懺ᄒᆞ다온 구존 業두<兪>
⑪ 누이다ᄇᆞᆫ 구즌 業도<姜>
⑫ 뉘슬ᄒᆞ더온 궂은 業두<炯>
⑬ 참ᄒᆞᆫ다ᄒᆞᆫ모딘 업두<류>
<제안> 懺ᄒᆞ더온 궂은 業도

제6구의 '懺爲'는 '爲'가 붙어 파생된 동사로 일음절 한자 '懺'에 'ᄒᆞ-'가 결합된 단어이다. 균여 향가에서 '일음절 한자+爲-'로 구성된 동사를 음독할 것인가 아니면 훈독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아래의 (11)은 균여 향가에서 '일음절 한자+爲' 구성으로 이루어진 표현인데 필자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균여 향가에서 '일음절 한자+爲-' 구성은 음독된 것으로 본다.

(11) 균여 향가의 '일음절 한자+爲-' 구성
礼爲白齊<예경제불가>, **對爲**白口只<칭찬여래가>, **供爲**白制<광수공양가>, **應爲**賜下呂<청불주세가>, **安爲**飛等<항순중생가>, **懺爲**如乎仁<보개회향가>, **礼爲**白孫<보개회향가> 등

'如'는 新羅白紙墨書華嚴經寫經造成記(755년)의 '以後中 坐中 昇 經寫如'나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766년)의 '石南巖藪 觀音巖中在內如'와 같이 8세기에는 종결어미로 표기되기 시작하였는데[13] 균여 향가에 쓰인 '如'의 용례는 아래의 (12)와 같다.

(12) 균여 향가의 '如'의 용례
刹刹每如<예경제불가>, 手良每如<광수공양가>, 出隱伊音叱如支<참회업장가>, 潤只沙音如<청전법륜가>, 仏体爲尸如敬叱好叱等耶<항순중생가>, 懺爲如乎仁<보개회향가>, 此如趣可<총결무진가> 등

균여 향가에서는 '刹刹每如, 手良每如'의 '每如'나 '出隱伊音叱如支, 潤只沙音如'와 같이 '다'로 읽히는 경우와 '仏体爲尸如, 此如'와 같이 '디'로 읽히는 경우가 있다. 〈보개회향가〉의 '懺爲如乎仁'은 전자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더'와 '다' 중 어느 것으로 읽는 것이 옳은지가 문제이다. 아래의 (13)과 같이 15세기에서 선어말어미 '-더-'는 1인칭 주어와 일치 현상을 보이는 '-오-'와 결합하면 '-다-'로 표기된다.

(13) 가. 어셔 가져다가 주기라 내 ᄎᆞ마 몯주겨 ᄒᆞ다니
<월석10:25ㄱ>
나. 우리 …… 이 ᄀᆞᆮᄒᆞᆫ 大菩薩摩訶薩 衆이 ᄲᅡᄒᆞᆯ 從ᄒᆞ야 소사나 …… 如來ㅅ게 묻ᄌᆞ오ᄆᆞᆯ 보디 몯ᄒᆞ며 듣디 몯ᄒᆞ얫다라(我等이 …… 不見不聞如是ᄒᆞᆫ 大菩薩摩訶薩衆이 從地湧出ᄒᆞ야 …… 合掌供養ᄒᆞᄉᆞ와 問訊如來ᄒᆞ얫다라) <법화5:95ㄴ>

〈보개회향가〉의 '懺爲如乎仁'의 '如'는 '乎'와 분리되어 표기되어 있기

13) 戊戌塢作碑에 나오는 '如'를 종결어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종결어미 '如'가 쓰인 시기는 좀 더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戊戌塢作碑' 자체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때문에 '다'보다는 '더'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균여 향가가 지어진 시기에는 15세기와 같은 선어말어미 '-더-'와 '-오-'가 결합하여 '-다-'로 화합되던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惡寸 業置'는 〈보개회향가〉의 화자인 普賢菩薩이 참회하던 내용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善業이 아닌 惡業이다. '惡寸'에 대한 독법은 '모딜다, 궂다, 멎다'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15세기 언해의 용례를 아래의 (14, 15)와 같이 '멎다'와 '궂다'가 '惡'의 언해에 쓰이고 있어서 어느 것을 '惡寸 業置'의 '惡'의 독음으로 채택할지 망설여진다. 단지 15세기 언해자료에서는 '멎-'보다는 '궂-'이 훨씬 광범위하게 쓰였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惡'을 [궂]으로 읽는다.

(14) 가. ᄒᆞ다가 種種 <u>머즌</u> 보매 ᄠᅴ디옛거든 다 引導ᄒᆞ야 ᄒᆞᆫ 보매 두어 漸漸 菩薩ㅅ 힝뎌글 닷가 無相菩提ᄅᆞᆯ ᄉᆞᆯ리 證케 호리라(若墮種種<u>惡</u>見稠林, 皆當引攝置於正見, 漸令修習諸菩薩行, 速證無上正等菩提) <석보상절9:8>

나. <u>惡</u>趣는 <u>머즌</u> 길히니 地獄 餓鬼 畜生이라 <석보상절9:10ㄴ>

(15) 가. 가ᄌᆞᆯ비건댄 五百 由旬 險ᄒᆞᆫ 어려운 <u>구즌</u> 길히 머러 그츤 사ᄅᆞᆷ 업슨 두리운 ᄯᅡ해(譬如五百由旬險難<u>惡</u>道, 曠絕無人、怖畏之處) <법화경언해3:171ㄱ>

나. 文殊師利여 ᄆᆞᆯ읫 衆生이 됴ᄒᆞ며 <u>구즌</u> 이ᄅᆞᆯ 모ᄅᆞ고 오직 貪ᄒᆞ며 앗가ᄫᆞᆫ ᄆᆞᅀᆞᄆᆞᆯ 머거(曼殊室利！有諸衆生, 不識善<u>惡</u>, 唯懷貪悋) <석보상절9:11ㄴ>

'置'는 〈보개회향가〉에 '刀'로도 나오는데 '또한, 역시'의 뜻을 가진 보조사이다. 보현십원가에는 '置/刀'와 같이 동일한 음상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표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隱/焉', '馬洛/每如', '亦/也', '乙/肹'과 같은 예가 있다.

3.7. 法性叱宅阿叱寶良

① 法性ㅅ 宅앳 寶라<小>　② 法性ㅅ 지빗 보비라<梁>
③ 法性ㅅ 宅잇 寶라<池>　④ 법성(法性)ㅅ 대깃 보(寶)야<홍>
⑤ 法性ㅅ 宅잇 寶라<李>　⑥ 법성ㅅ 지뱃 보비라<정>
⑦ 법셩ㄷ 땍앧 뽀빠이라<善>　⑧ 法性ㅅ 宅앳 보비라<俊>
⑨ 法性 지밧 寶라<完>　⑩ 法性ㅅ 짓앳 寶이라<兪>
⑪ 法性ㅅ 짓앳 보배라<姜>　⑫ 法性ㅅ 집앗 보비라<炯>
⑬ 법셩시 간시 아시 보라<류>　<제안> 法性ㅅ 집앗 寶라

'法性叱 宅阿叱'은 漢譯詩의 '法性宮'에 해당된다. 普賢行願品에서는 이와 직접적으로 대비되는 구절이 없다. '宅阿叱'의 '阿叱'은 '一切 世間ㅣㅿㄴ 諸ㄱ 天ㅣ'〈화엄08:16〉 등 석독구결에서는 그 용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의, -에 있는'으로 해석되며 〈보개회향가〉의 '宅阿叱'도 '집에 있는'으로 해석할 수 있다.

'良'은 종결어미가 아닌 연결어미 '-라'로 보고자 한다. 석독구결에서 원인·이유의 연결어미 '-라'는 아래의 (16)과 같이 '-ᄆ'로 표기되었다.

(16) 가. 一切 衆生ㄱ {於}生死ㄴ 中ㅋㅓㅅㅋ 多聞ㅅㄱ 無有ㅁㅏㄱ {此}ㄲ 一切法ㄹ 了知ㄲ 不ㅅ 能ㄲㅊㅅㅏㄱㄲᄆ 我ㄱ 當ㅅ 發意ㅅㅋㅎ 多聞藏ㄹ 持ㅅㅋㅅ 阿耨多羅三藐三菩提ㄹ 證ㅅㅋㅎ 諸ㄱ 衆生ㅋ {爲}ㅡ 眞實法ㄹ 說ㄱ未ㅋㄴㅣㅅㅏㄲㅅ ㄹ {是}ㄲㄹ 名ㅏ 菩薩摩訶薩ㄲ 五ㄱ 第ㄴ 多聞藏ㅡㅅ未ㅏ ㅣ <화소08:19-09:04>

나. (幻)化ㄴ 衆生ㄲ 幻化ㄹ 見ㅏㄱㄲㅎ 幻化ㄲ 幻化ㄹ 見ㅏㄱㄲᄆ 婆羅門ㅣ 刹利ㅣ 毗舍ㅣ 首陁ㅣㅅ(ㅎ)ㅋ 神我 等ㅅㄱ 色心ㄹ 名ㅋ {爲}幻諦ㅣㅅㅓㄲㅎ <구인14:01-02>

향가에서 '良'은 연구자에 따라 '야'와 '라'로 구분하여 읽기도 하고

'라'로만 읽기도 한다. 균여 향가에서 '良'은 처격, 부동사 어미, 선어말 어미, 부사화 접미사, 감탄의 종결어미 등으로 기능한다. '-라'로 읽음직하게 보이는 예들로는 〈예경제불가〉의 法界毛叱所只至去良, 〈칭찬여래가〉의 一念惡中涌出去良, 〈항순중생가〉의 '迷火隱乙 根中 沙音賜焉逸良'와 〈보개회향가〉의 이 예 등 4개가 있다. 앞의 두 예는 '去良'에 쓰인 '良'의 예인데 대부분의 향가 해독자들은 '良'을 '-라'로 읽고 있다. 〈항순중생가〉의 '沙音賜焉逸良'는 '良' 앞에 '逸'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良'은 '아'로 읽히었든 아니면 '라'로 읽히었든 결과적으로는 '라'가 된다. 그런데 〈보개회향가〉의 '良'은 제5구, 제6구, 제7구와 제8구 사이를 잇는 연결요소로 전자와 후자를 인과관계로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7구에서 종결되고 제8구에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표현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이유의 연결어미에 의해 표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그런데 균여 향가와 유사한 문법 현상을 보이는 석독구결에서도 이유의 종결어미 '-ㅁ'가 있기 때문에 균여 향가에서도 이유의 연결어미로 쓰인 '良'을 '라'로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균여 향가에서 이유의 접속 표현은 '-良'으로 표기되고 석독구결에서는 '-ㅁ(原字羅)'로 표기되며 그 독음은 '라'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8. 舊留然叱爲事置耶

① 녜로 또 ᄒᆞᆫ 일이더라<小>　② 녜루 그랏ᄒᆞ샷두라<梁>
③ 녜루 그랏 ᄒᆞ샤두라<池>　④ 녜루 그랏 ᄒᆞ샤두야<홍>
⑤ 녜로 그럿 ᄒᆞᄉᆞᄃᆞ라<李>　⑥ ᄒᆞᄅᆞᄅᆞᆺ ᄒᆞ리리두야<정>
⑦ 녜루 고랃 까씨 도라<善>　⑧ 녜루 그럿 ᄒᆞ샤두라<俊>
⑨ 녜리로 그럿 ᄒᆞ시도야<完>　⑩ 녀리로 그럿 ᄒᆞ시두라<兪>
⑪ 녀리루 그랏헌 일이드라<姜>　⑫ 녀리로 엳ᄒᆞ시두야<炯>
⑬ 니루 그러 ᄒᆞ시 두리<류>　<제안> 녀리로 그엿ᄒᆞᆫ 일이도야

'舊留'는 〈彗星歌〉의 '舊理'를 참조하면 '녀리로'로 읽을 수 있다. 이것은 '녀리〉녜'의 과정을 상정하는 것인데 '누리〉뉘' 등의 예가 있어서 가능한 설정인 것 같다.

'然'은 석독구결에서 '然ᄂᆞᆫᄀᆞᆯᄯᅳᆫᄃᆡ'〈화소09:09〉, '然ᄒᆞᄂᆞᆫᄆᆞᆯ'〈화소13:18〉, '然ᄒᆞᄂᆞᆫᄂᆞᆺᄀᆞᆺᄒᆞᄂᆞᆫ'〈화엄 14:15〉와 같이 '然(ᄒᆞ)ᄂᆞᆫ'으로 표기되어 균여 향가와 석독구결 표기법의 동질성을 보여 준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이와 비슷한 문맥에서 '그러-' 계열이 쓰였다.

(17) 가. 諸佛ㅅ 依報ㅣ 다 그러ᄒᆞ시니 因行이 ᄀᆞᄐᆞ실ᄊᆡ니라 <월석12:10ㄱ>
나. 이 내 方便이며 諸佛도 ᄯᅩ 그러ᄒᆞ시니라 (是我方便이며 諸佛도 亦然ᄒᆞ시니라) <법화3:50ㄴ>

말음첨기된 것으로 보이는 'ᄂᆞ'와 15세기 어형을 참고하면 '然叱爲'는 '그엿ᄒᆞ' 정도로 읽을 수 있다.

'事'는 향가 연구자들이 대부분 '샤' 또는 '시'로 읽었으나 小倉進平(1929:142), 姜吉云(2004:498)를 따라 '일'로 읽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姜吉云(2004)는 〈보개회향가〉의 제8구 '舊留 然叱爲 事置耶'를 '녀리루 그랏(=그렇게) 헌 일이드라'로 읽고 '옛적부터 그렇게 전해 내려온 것이더라'로 해석하였나 제8구에는 '전해 내려오다'에 해당하는 어구가 없을뿐더러 이렇게 해석하면 전체 文脈에 맞지 않는다. 제8구의 주체는 부처로서, 옛날부터 모든 부처는 〈보개회향가〉에서 서술한 내용대로 해 왔음을 노래한 구절이다. '事'는 균여 향가에서 〈보개회향가〉 이외에 〈총결무진가〉에 두 번 쓰였는데 이 경우의 '事'를 모두 '일'로 읽을 수 있다.

(18) 가. 伊波普賢行願 又都仏体叱事伊置耶 <총결무진가>
나. 阿耶 普賢叱心音阿于波 伊留叱餘音良他事捨齊

<총결무진가>

(18)은 〈총결무진가〉의 제7·8행과 제9·10행이다. 8행의 '仏体叱 事伊置耶'는 '부처의 일이도다'로 해석되고 10행의 '他事捨齊'는 '남의 일 버리자'로 해석되므로 8행과 10행의 '事'는 '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보개회향가〉의 제8행 '舊留然叱爲事置耶'의 '事'를 '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제8행의 전체적인 의미는 '부처님도 옛날부터 그렇게 하셨도다'로 보인다. 그런데 종래의 해석처럼 '事'를 '시' 또는 '샤'로 읽으려면 이 표기에 쓰였던 '賜'와 함께 동일한 음상에 쓰인 두 가지 표기가 된다. 균여 향가에서 주체존대 '-시-'에 대한 표기는 아래의 (19)와 같다.

(19) 균여 향가에서 '-시-'의 표기례

'法界滿賜隱仏体'<예경제불가>, '法界滿賜仁仏体'<광수공양가>, '十方叱仏体閼遣只賜立'<참회업장가>, '修叱賜乙隱頓部叱吾衣修叱孫丁'<수희공덕가>, '得賜伊馬落人米无叱昆'<수희공덕가>, '必于化緣動賜隱乃'<청불주세가>, '向屋賜尸朋知良闕尸也'<청불주세가>, '佛影不冬應爲賜下呂'<청불주세가>, '皆往焉世呂修将來賜留隱'<상수불학가>, '皆仏体置然叱爲賜隱伊留兮'<상수불학가>, '迷火隱乙根中沙音賜焉逸良'<항순중생가>, '仏体頓叱喜賜以留也'<항순중생가>

균여 향가에서는 '-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예는 (1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두 12회가 나오는데 '-시-' 표기에는 모두 '賜'가 쓰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균여 향가에도 조사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표기를 보이는 경우를 제시했으나 '-시-'의 경우 '賜'가 절대적인 숫자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곳에서만 '事'가 '-시-' 표기를 위해 쓰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인다.

'事'는 위에서 제시된 균여 향가의 3 개의 예 이외에 유사 향가에서도

쓰이지 않았으나 이두에서는 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균여 향가가 지어지고 서사되는 13세기에도 광범위하게 쓰였다.

(20) 가. 此 作起數者 三百十二人 功夫 口十三日 了作事之
<戊戌塢作碑銘(578년)>
나. 如法以 作後 三年 崩破者 罪敎事
<南山新城碑銘(591년)>
다. 如天地設恒敎事是良尒
<柳璥功臣錄券(尙書都官貼)(1262)>
라. 誅流員將矣 奴婢等乙 公私分屬令是事是
<松廣寺奴婢文書(1281)>

그런데 이두에서 '일'로 해석되는 '事'에는 구체적인 사건을 뜻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문말 또는 문단말에 쓰이는 상투적인 종결요소라 할 수 있다. (20가~라)에 쓰인 '事'는 어느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을 지시하기보다는 특별한 의미가 없이 쓰이고 있어서 마치 형식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개회향가〉 제8구의 '事'는 구체적이지 않은 '사건(event)'의 의미이기 때문에, 〈보개회향가〉 제8구의 '事'와 (20)에 제시된 이두의 '事'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개회향가〉의 '然叱爲事置耶'의 '事'를 '시'로 읽는 것을 반대하고 '일'로 읽기로 한다.

'事'를 '일'로 읽게 되면 '置耶'를 '도야'로 읽게 된다. 즉 '事置耶'은 '일이도야'로 읽히어 '일이도다'로 해석된다. '置耶'를 '도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든 예 중에서 〈총결무진가〉의 '又都仏体叱事伊置耶'에 이미 '置耶'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계사 '伊'까지 표기되고 있다. 〈보개회향가〉의 '事置耶'는 〈총결무진가〉의 '事伊置耶'를 참조하면 계사 '이'가 생략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3.9. 病吟 禮爲白孫隱佛體刀

① 病吟 절ᄒᆞᅀᆞᆷ을손 부텨도<小> ② 아으 禮ᄒᆞᆯᄇᆞᆯ손 부텨도<梁>
③ 아으 禮ᄒᆞᅀᆞᆷ손 부텨도<池> ④ 아야 례(禮)ᄒᆞᅀᆞᆷ손 부텨도<홍>
⑤ 아라 禮ᄒᆞᆯ손 분ᄃᆡ도<李> ⑥ 아으 례ᄒᆞᆯᄇᆞᆯ 부텨도<정>
⑦ 떨까 삷손 뿐다도<善> ⑧ 아— 禮ᄒᆞᅀᆞᆷ손 부텨도<俊>
⑨ 아야 절ᄒᆞᆯᄇᆞᆯ손 부텨도<完> ⑩ 아라! 禮ᄒᆞᅀᆞᆷ손 佛體도<兪>
⑪ 아으 禮허ᄉᆞᄇᆞᆯ손 부텨도<姜> ⑫ 아아 고마ᄒᆞᆯᄇᆞᆯ 손 부텨도<炯>
⑬ 아으 례ᄒᆞᆫ ᅀᆞᆷ손부텨도<류> <제안> 아야 禮ᄒᆞᅀᆞᆷᄋᆞᆯ 손 仏切도

'病吟'은 균여 향가에서 제9구의 감탄사로 쓰인 것 중의 하나이다. 균여 향가에서 제9구의 감탄사로 쓰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21) 균여 향가의 제9구의 첫 구 표기 양상
가. 歎曰 나. 隔句 다. 阿耶 라. 落句 마. 後句 바. 後言 사. 落句 아. 城上人 자. 打心 차. 病吟 카. 阿耶

(21)을 보면 균여 향가의 감탄사 중에서 차자 표기는 〈칭찬여래가〉와 〈총결무진가〉의 '阿耶'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개회향가〉의 '病吟'은 당연히 '아야'로 읽어야 한다.

'禮爲白孫隱'의 '禮爲'는 '일음절 한자+爲-' 구성으로 이 글에서는 이 경우 음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禮爲白'의 의미는 좀 더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禮爲-'의 의미는 '예하다'이겠지만 이렇게 해석해서는 〈보개회향가〉의 전체의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다. '禮爲-'의 표제명사는 '佛體'인데, '부처'가 禮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부처'는 '(우리가) 예를 올리는 부처, 예를 받는 부처'가 된다. '禮爲白'의 '-白-'은 '禮爲-'의 대상인 '부처'에 대한 화자의 겸양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14]

14) '-ᄉᆞᆸ-'을 객체에 대한 높임으로 보더라도 문맥의 전개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禮爲白孫隱佛體刀'의 뜻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부처님' 또는 '예배를 받는 부처님'이 된다.

'孫隱'의 '孫'은 〈보개회향가〉의 제1구 '皆 吾衣 修孫'의 '孫'과 같이 'ㅅ+오+ㄴ'으로 분석되는 어미구조체로 보거나 또는 '孫'을 의존명사로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ㅅ'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부담이 있고, 후자의 경우 문증되지 않는 의존명사 '손'을 상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미지의 선어말어미 'ㅅ'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孫'을 의존명사로 보는 견해가 설명의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孫'을 의존명사로 보는 견해를 취한다.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의존 명사로 보이는 몇몇의 형태가 있으나 그 독음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孫'을 어미구조체로 보는 것보다는 의존 명사로 보는 편이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 의해서이다.

3.10. 吾衣身伊波人有叱下呂

① 나의 몸인바 사ᄅᆞᆷ 잇이리(오)<小>② 내 몸 이바 ᄂᆞᆷ 이시리<梁>
③ 내ᄋᆡ 몸이바 ᄂᆞᆷ잇호리<池> ④ 내 몸 이버 사ᄅᆞ미 이시리<홍>
⑤ 내 몸 입아 ᄂᆞᆷ 잇ᄋᆞᆯ이<李> ⑥ 우리 모미믈 ᄂᆞᆷ 이시아리<정>
⑦ 저이 몸 이반 사람 읻까로<善> ⑧ 내 몸 이바 사ᄅᆞᆷ 잇ᄒᆞ리<俊>
⑨ 내ᄋᆡ 모마 뎌버 사ᄅᆞᆷ 이샤리<完>⑩ 나ᄋᆡ 몸 이바 ᄂᆞᆷ 잇아리<兪>
⑪ 내 몸 이바 사람 이사려<姜> ⑫ 나ᄋᆡ 몸 입어 사ᄅᆞᆷ이시아리<炯>
⑬ 우리 몸 이바사ᄅᆞᆷ 이시하리<류> <제안> 나의 몸 伊波 ᄂᆞᆷ 잇아리

〈普皆廻向歌〉 제10구 '吾衣 身 伊波 人 有叱下呂'의 '吾衣 身'은 '나의 몸' 즉 '나 자신'이 된다. 그런데 이때의 '나'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普賢行願品은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자신의 10種 行願을 말해 주는 것이어서 보현행원품을 말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普賢菩薩이 된다. 아래의 (22)는 정원본 『화엄경』의 권제40 〈普賢

行願品〉의 첫 부분으로서 보현보살이 여러 보살들과 선재동자에게 말하는 보현행원품의 대목을 잘 볼 수 있다.

(22) 가. 爾時 普賢菩薩摩訶薩偈歎如來勝功德已 告諸菩薩及善財言 善男子 如來功德 假使十方一切諸佛 經不可說不可說佛剎極微塵數劫 相續演說 不可窮盡 若欲成就此功德門 應修十種廣大行願

나. 그 때에 보현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여래의 공덕은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겁 동안에 계속하여 말하더라도 끝까지 다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려면 마땅히 열 가지 넓고 큰 행과 원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런데 균여스님이 보현행원품을 보현십원가라는 향가로 지어 부른 것은 중생들에게 보현보살의 行願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均如傳』의 제7장 〈歌行化世分〉에는 균여스님이 普賢菩薩의 열 가지 誓願을 바탕으로 노래 11곡을 짓고 쓴 글의 서문이 밝혀져 있다. 이 서문에 의하면 균여대사는 "범속한 사람들의 선한 바탕을 일깨우고자" 향가 11수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아래의 (23)은 『均如傳』의 제7장 〈歌行化世分〉에 실려 있는 균여스님의 普賢十願歌 序文의 일부분이다.

(23) 가. 夫詞腦者 世人戲樂之具 願王者 菩薩修行之樞 故得涉淺歸深 從近至遠 不憑世道 無引劣根之由 非寄陋言 莫現普因之路 …… 而傳文作句 願生凡俗之善根 欲笑誦者 則結誦願之因 欲毁念者 則獲念願之益 伏請後來君子 若誹若讚也是閑

나. 대저 사뇌라 하는 것은 세상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데 쓰는 도구요, 원왕이라 하는 것은 보살이 수행하는 데 줏대가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얕은 데를 지나서야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고,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야 먼 곳에 다다를 수가 있

> 는 것이니, 세속의 이치에 기대지 않고는 저열한 바탕을 인도할 길이 없고, 비속한 언사에 의지하지 않고는 큰 인연을 드러낼 길이 없도다. …… 서문을 쓰고 시귀를 짓는 것은 범속한 사람들의 선한 바탕을 일깨우고자 함이니 비웃으려고 염송하는 자라도 염송하는 바 소원의 인연을 맺을 것이며, 훼방하려고 염송하는 자라도 염송하는 바 소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엎드려 바라노니 훗날의 군자들이여, 비방도 찬양도 말아주시기를.

우리는 (23)을 통해서 균여스님이 보현십원가를 지은 목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스님이 보현십원가를 지은 목적과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현십원가에 등장하는 '나'는 普賢菩薩이자 동시에 보현보살의 十種 大誓願을 실천하도록 권유받은 우리 衆生들 자신이 된다.

'人 有叱下呂'의 '人'은 '사름'과 '남'으로 읽는 두 개의 독법이 가능하다. 균여 향가에서는 '人音'〈隨喜功德歌〉으로도 나오며 15세기 국어에서 '사름'이 '남'의 의미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이런 용법의 '사람'은 현대국어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보개회향가〉의 제10구는 '나(吾)'와 '남(人)'이 대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나'에 대한 대칭이 적극적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이 점에 무게를 두고 제10구의 '人'을 '사름'이 아닌 '남'으로 읽는 쪽을 택한다(楊熙喆 1988:34).

제10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伊波'이다. '伊波'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伊波'가 어떤 동사가 활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부분의 문맥적 의미는 '나의 몸 대신에' 또는 '나의 몸이 아닌'이므로 문맥상 '伊波'의 의미는 '대신에' 또는 '아닌'이 될 것으로 보인다. '伊波'가 부정 표현일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대신에'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동사의 활용이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15] 또 다른 하나는 '伊波'를 감탄사로 보는 것이다. 〈총결무진가〉에

15) 이 경우 金完鎭(1980:205)의 '뎌버'(疊)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는 〈보개회향가〉 제10구의 '伊波'와 동일한 표기가 제7구에 나온다. 아래의 (24)는 〈총결무진가〉의 '伊波'의 예이다.

(24) 총결무진가 '伊波'의 예
此如趣可伊羅行恨 / 向乎仁所留善陵道也
伊波普賢行願 / 又都仏体叱事伊置耶

梁柱東(1965:854)는 〈보개회향가〉의 '伊波'를 (24)에 제시된 〈총결무진가〉의 '伊波'와 같이 감탄사로 해석하였다. '伊波'를 감탄사로 볼 경우 〈보개회향가〉 제10구의 의미는 '이바, 나와 남이 (따로) 있겠는가?'로 해석된다. '伊波'를 감탄사로 보는 견해는 감탄사가 句의 처음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견해도 무시해 버릴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보개회향가〉 제10구의 '伊波'를 '이바'로 읽고 감탄사로 처리하는 것은 〈총결무진가〉의 제7구의 '伊波'와 동일하게 해석하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4. <普皆廻向歌> 해독 제안과 현대역

普皆廻向歌

01 皆吾衣修孫
다 나의 닭은 손 다 나의 닦은

02 一切善陵頓部叱迴良只
一切 善陵 頓部叱 돌이악 一切 善根 전부 돌려

03 衆生叱海惡中

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근거가 나오기 전에까지는 미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衆生ㅅ 바ᄃᆞᆯ아긔 衆生(의) 바다에
04 迷反群无史悟內去齊
입은 물 없이 알이ᄂᆞ가져 迷惑한 무리 없이 깨닫게 하고자
05 仏体叱海等成留焉日尸恨
仏体ㅅ 바ᄃᆞᆯ 일운 날은 부처(의) 바다 이룬 날은
06 懺爲如乎仁口寸業置
懺ᄒᆞ더온 궂온 業도 참회하던 惡業도
07 法性叱宅阿叱寶良
法性ㅅ 집앗 寶라 法性 집의 보배라
08 舊留然叱爲事置耶
녀리로 그엿ᄒᆞᆫ 일이도야 옛부터 그런 것이도다
09 病吟 礼爲白孫仏体刀
아야 礼ᄒᆞᄉᆞᆲ올 손 仏体도 아- 예배 받으시던 부처님도
10 吾衣身伊波人有叱下呂
나의 몸 伊波 ᄂᆞᆷ 잇아리 내 몸 伊波 남 있으리

參考文獻

姜吉云(2004), 『鄕歌 新解讀 硏究(改訂版)』, 한국문화사.
광덕 옮김/박성배 강의(2008), 『미국에서 강의한 화엄경 보현행원품』, 도서출판 도피안사.
權仁瀚(2004),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제이앤씨.
金善琪(1993), 『옛적 노래의 새풀이』, 보성문화사.
金相日(1999), 〈보현십원가〉의 한역시 〈보현십원송〉에 대하여, 『東岳漢文學論集』 9, 東岳漢文學會, 1-23.
金星周(2011), 보현행원품과 균여 향가, 『제42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9-25.
金永萬(1985), 均如傳 二題 - '嚫拏〈名+庾〉賀'(헌나뮤하)와 '(叱)等耶'(쏜여) -, 『語文論集』 24 · 25, 안암어문학회, 81-102.
金永萬(1991), 鄕歌의 '善陵'과 '頓部叱'에 대하여, 『東洋學』 21,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31-56.
金永萬(1997), 석독구결 '皆ㄷ', '悉ㅈ'와 고려 향찰 '頓部叱', '盡良'의 비교 고찰, 『口訣硏究』 2, 口訣學會, 1-26.
金完鎭(1980), 『鄕歌解讀法硏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김완진(2000),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유범(2010), 均如의 鄕歌 〈廣修供養歌〉 解讀, 『口訣硏究』 25, 口訣學會, 47-81.
金俊榮(1979), 『鄕歌文學』, 螢雪出版社.
金知見 編著(1977), 『均如大師華嚴學全書 上,下』, 대한전통불교연구원.
金知見(1997), 均如傳 再考, 『韓國佛敎의 座標』, 綠園스님古稀記念學術論集.
김지오(2010), 〈懺悔業障歌〉의 國語學的 解讀, 『口訣硏究』 24, 口訣學會, 61-94.
南豊鉉(2000), 『吏讀硏究』, 태학사.
南豊鉉(2009가), 借字表記 資料에 나타난 合當法의 助動詞 '內'와 그 發達, 『2009년 구결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1-104.
南豊鉉(2009나), 『古代韓國語硏究』, 시간의 물레.
南豊鉉(2010), 韓國語史 硏究에 있어 口訣資料의 寄與에 대하여, 『口訣硏究』 25, 口訣學會, 5-20.
南豊鉉(2011), 『遺事』 鄕歌와 『均如傳』 鄕歌의 文法 比較, 『제42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39.
東國大學校譯經院(1976), 『高麗大藏經(補遺版 治函) 47』, 東國大學校出版部, 259-262.
東國譯經院(1987), 『한글대장경 華嚴經(四十卷本)』, 東國譯經院
류렬(2003), 『향가연구』, 박이정.
무비(1997), 『보현행원품강의』, 민족사.
박용식(2010), 향가 문법 형태의 표기에 반영된 고형과 개신형, 『한국어문학연구』 54, 한국어문학연구회, 188-208.
박재민(2002), 普賢十願歌 難解句 5題, 『口訣硏究』 10, 口訣學會, 143-175.
박진호(1997),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국립

국어연구원, 117-145.
박진호(1998), 고대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 실태 연구 3: 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박진호(2008), 鄕歌 解讀과 國語 文法史, 『國語學』 51, 國語學會, 313-337.
백두현(1997), 『석독구결의 문자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법정스님(1984) 『나누는 기쁨』, 불일출판사.
서종학(1995), 『吏讀의 歷史的 硏究』, 영남대학교출판부.
小倉進平(1929), 『鄕歌及び吏讀の硏究』, 경성제국대학교.
안정희(2010), 참회업장가, 구결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논문.
梁柱東(1965), 『增訂 古歌硏究』, 一潮閣.
楊熙喆(1988), 『高麗鄕歌硏究』, 새문社.
兪昌均(1996), 『增訂 鄕歌批解』, 형설출판사.
李丙疇(1981), 均如傳 譯注, 『東岳語文論集』 14, 東岳語文學會, 1-20.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41-75.
이용(2007), 〈恒順衆生歌〉의 解讀에 對하여, 『口訣硏究』 18, 口訣學會, 173-205.
이용(2008), '-져'의 역사적 고찰, 『震旦學報』 105, 震檀學會, 187-206.
이용(2011), 신라이두에 나타난 內에 대하여, 『제42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3-61.
이정임(1997), '均如傳' 撰述攷, 『한국어문학연구』 8,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89-216.
이현희(1996), 향가의 언어학적 해독, 『새국어생활』 6-1, 국립국어연구원, 3-16.
임기중 편저(1998), 『새로 읽는 향가 문학』, 아세아문화사.
정경재(2009), 礼敬諸佛歌, 구결학회 월례연구회 발표문(2009.11.28).
정렬모(1965), 『향가 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鄭在永(2001), '禮敬諸佛歌' 해석,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337-352.
조연숙(2005), 최행귀의 한역시 연구, 『고시가연구』 25, 한국시가학회, 279-305.
池憲英(1947), 『鄕歌麗謠新釋』, 正音社.
池炯律(2007), 『鄕歌正讀(改訂版)』, 다다아트.
최남희(1986), 『고려향가의 차자표기법 연구』, 弘文閣.
최철(1998), 『均如傳』 소재 鄕歌 관련 기록의 검토, 『향가연구』 국문학 연구 총서 1, 국어국문학회편, 태학사, 29-51.

崔喆 · 安大會(1988), 『譯註 均如傳』, 새문사.
카와사키 케이고(2011), 均如鄕歌 解讀을 위한 漢文資料의 體系的 對照, 『제42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9-98.
학담(1992/2008) 『화엄법계와 보현행원』, 큰수레.
한정섭(1997),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 보현행원품』, 불교통신교육원.
황선엽(2008), 三國遺事와 均如傳의 鄕札 表記法 비교, 『國語學』 51, 國語學會, 279-311.
황선엽(2009), 常隨佛學歌, 구결학회 월례연구회 발표논문(2009.10.24).
황선엽(2011), 균여 향가 표기 小考, 제42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별지.
황선엽 · 이전경 · 하귀녀 외(2009), 『釋讀구결사전』, 박문사.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釋華嚴敎分記圓通鈔』 이미지
http://kb.sutra.re.kr/ritk/search/xmlSearch.do
http://buddha.dongguk.edu/bs_list.aspx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main.html

[413-83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34번지 에이스 10차 아파트 102동 1002호
E-mail: sutra01@hanmail.net
접수일자: 2010.07.05
심사일자: 2010.07.26
게재결정: 2010.08.10

A Decipherment of Gyunyeo's Hyangga *Bogaehoihyangga*

Kim, Seong-ju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new linguistic decipherment of Bogaehoiyangga (普皆廻向歌), one of the Gyunyeo(均如)'s Hyangga, with reference to the previous decipherments and the result of the Seokdok Kugyol(釋讀口訣) which is a type of chinese-characters-reading-system in Koryo Dynasty. However we do not need to depend upon its Chinese translation poems translated by Choi Haenggi(崔行歸) when we decipher the Gyunyeo's Hyangga. It is because he did not translate the whole Gyunyeo's Hyangga literally. I deciphered Bogaehoihyangga with reference to Bogaehoihyangwon(普皆廻向願), a part of the Jeongwonbon Hwayenjing vol. 40. and Bogaehoihyangwon(普皆廻向頌), its Choi's Chinese translation.

In this paper, I newly deciphered some parts of the poem as belows; 修孫 in the 1st. line, has to be read as 'dask-ʌn-son' which means 'what he cultivated in the religious sense'.

迴良只 in the 2nd. line, has to be read as 'dol-i-ak' which means 'he holds the momorial service to mankind'.

悟內去齊 in the 4th. line, has to be read as 'al-i-nʌ-ga-jyeo' which means 'I want to inform all my Buddhist merit to the confused people'.

然叱爲事置耶 in the 8th. line, has to be read as 'geu-yeos-hʌn-il-i-do-ya' which means 'Buddha also lives all his life like that.

Key words: Gyunyeo(均如)'s Hyangga, Bogaehoihyangga(普皆廻向歌), Choi Haenggi(崔行歸), Bogaehoihyangwon(普皆廻向願), 修孫, 迴良只, 悟內去齊, 然叱爲事置耶.